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OCTOBER 10
2025

SAEROUNQT

새벽예배 설교 한 흥 목사 · 매주 화-토 6:20 AM · 새로운교회(컨벤션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여호수아/신명기]



마음에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 드릴지니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광야생활 2년 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는 데 동참하라고 초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 즉,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남녀노소, 빈부의 차이 상관없이 다 이 초대에 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막 공사에 참여하라는 말씀에 헌물을 들고 달려온 자들은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자발적으로 기쁘게 달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헌금은 돈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받은 사람들이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소유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너희가 택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헌신은 결코 이웃과 비교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 가진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달란트 가진 종과 다섯 달란트 가진 종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다르십니다. 그러니 무리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본문을 쭉 읽어 보면 잘 사는 사람들은 금이나 은 같은 예물들을 드린 사람들도 있었지만, 갖가지 색깔의 실이나 짐승 가죽, 나무, 기름 같은 일상적인 물건들을 가져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막에는 이 모든 예물이 다 각자 나름대로 쓰임 받아 사용되었습니다. 형편에 따라, 각자 최선을 다해 기쁘게 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물질뿐 아니라 재능의 헌신을 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여인들은 실을 뽑아 성막을 짓는 옷감을 준비했고, 브살렐이라는 장인은 금속과 나무를 잘 다루었기에 성막 제작 공사를 총괄했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물질의 헌신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금 예물들은 4백 년 애굽 노예 생활의 대가로 받은 돈이었고, 장차 약속의 땅에 가서 쓸 정착 자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전 그들은 황금송아지 우상 사건 때 우상 만들라고 이것들을 바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만 사실 세상 우상들에게는 그보다 더한 것들을 아낌없이 바치고 있습니다. 헌금도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은 선택을 요구합니다. 세상의 우상은 항상 우리에게 가진 것을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은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차피 없어질 이 땅의 재물로 영원한 하늘나라 공간에 쌓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 보았기에 훗날 약속의 땅에 가서 성전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의 헌물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에도, 자신의 가진 전부인 엽전 두 닢을 드렸던 과부. 당시 노동자들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여인. 가난한 서민들의 도시락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린 한 소년. 예수님은 이들의 헌신을 칭찬하시고 만천하에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님의 칭찬은 천동 같은 파워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그들의 헌물을 엄청난 기적의 마중물로 쓰셨습니다. 가난한 소년이 드린 볼품 없는 오병이어 도시락이 하늘나라 화폐로 바뀌니까 5천 명을 먹이는 엄청난 축복이 되었습니다.

창립 16년 만에 이번에 우리는 처음으로 약속의 땅을 위한 작정헌금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교회를 통해 받은 은혜의 스토리를 담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헌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간증을 귀하게 받으시고, 기적의 마중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SAEROUN QT

새벽예배 설교 한 흥 목사 · 매주 화-토 6:20 AM · 새로운교회(컨벤션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여호수아/신명기]



2025.
10

SAEROUN

QT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28	29 튀르키예-그리스 섬지순례 ~10/7	30	1
5	6 추석	7	8 대체공휴일
12	13	14	15
19	20	21	22
26	27	28	29
	27-29 목회 리더십 컨퍼런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2	3 개천절	4	
9 한글날	10	11	
16	17	18	9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1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025.
10

1	수	요셉 자손의 안타까움	수 17:14-18
2	목	땅 분배와 하나님의 명령	수 18:1-10
3	금	[개천절] 하늘을 여신 하나님, 영광의 왕을 맞이하라	시 24:1-10
4	토	베냐민 지파의 기업	수 18:11-28
5	주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사 30:18-26
6	월	넘어짐을 고치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호 14:1-9
7	화	[추석연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에 내리는 복	시 128:1-6
8	수	[대체공휴일] 믿음의 대를 이어가라	신 6:4-9
9	목	[한글날] 말씀으로 밝히는 길	시 119:97-105
10	금	여호수아의 기업	수 19:49-51
11	토	도피성의 은혜	수 20:1-9
12	주일	입다의 승리와 서원 이행	삿 11:29-40
13	월	하나님을 경외하라	전 5:1-7
14	화	신실하신 하나님	수 21:41-45
15	수	의리의 세 가문	수 22:1-6
16	목	증거의 제단 사건1	수 22:10-20
17	금	증거의 제단 사건2	수 22:21-29
18	토	증거의 제단 사건3	수 22:30-34
19	주일	길르앗과 에브라임의 전쟁	삿 12:1-7
20	월	다툼의 근원, 마음의 정욕	약 4:1-10
21	화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	수 23:1-10
22	수	하나님을 사랑하라	수 23:11-16
23	목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회고	수 24:1-13
24	금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수 24:14-24
25	토	여호수아의 죽음	수 24:25-33
26	주일	세 명의 사사들의 안타까움	삿 12:8-15
27	월	이름만 남은 신앙을 깨우라	계 3:1-6
28	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	신 1:1-8
29	수	지혜로운 리더십의 세움	신 1:9-18
30	목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와 그 결과	신 1:19-33
31	금	불신의 결과	신 1:34-46

새로운 QT
경건의 시간을 갖는 방법

묵상(경건의 시간, QT)이란

- QT는
01.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02.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03.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훈련입니다.



... 찬양과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염려와 세속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십시오.

... 본문 읽기와 묵상하기

본문 말씀을 2~3회 정도 읽은 후, 특별히 마음에 와닿거나 깨달아지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왜 내게 그 말씀을 주셨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한 묵상(Meditation)과 적용(Application)의 질문을 참고하십시오.

... 적용하기

묵상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은 나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혹은 격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인도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적용하고 기록하십시오.

... 기도하기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하루를 맡겨 드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 나눔

QT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변화된 나의 삶을 순예배에서 순원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또한 순예배 가이드를 참고해서 교재로 순예배를 드리고 나누십시오.



효과적인 중보기도를 위한 가이드

찬양과 기도

중보기도란 다른 사람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내 가족과 이웃, 사회와 나라, 민족 전체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것이 중보기도에 포함됩니다.

중보기도의 순서

1. 회개

자신 안에 고백하지 않은 숨은 죄가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도록 성령님께 시간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받습니다.

2.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

- 1) 배우자와 자녀들의 영적성장과 건강,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 2)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 1) 담임목사님과 부교역자, 순장, 임직자 및 각 사역 팀장님들 위에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기름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 2)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이 확장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선교지에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합니다.

4. 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 1)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 외 모든 위정자와 정부 기관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섬김의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2) 이 나라에 건전한 경제 질서의 기반이 세워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정직과 나눔, 청지기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3) 올바른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 4) 인터넷, 신문, 방송, TV, 잡지 등 모든 언론 매체가 진실에 기반을 두도록 기도합니다.
- 5) 타 종교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공훈이 경험되며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합니다.
- 6) 부부와 자녀, 그리고 형제 간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순예배시

순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 1) 지난주 순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을 받은 내용들에 대해 나누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 2)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을 빈 칸에 적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 1) 선교와 사회참여에 관련해 요청된 기도제목들을 놓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 2) 우리 교회 내 다양한 사역부서들 가운데 매주 부서별로 올라온 기도제목들 가지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요셉 자손의
안타까움

수 17:14-18

- 14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시므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The people of Joseph said to Joshua, "Why have you given us only one allotment and one portion for an inheritance? We are a numerous people, and the LORD has blessed us abundantly."

- 15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If you are so numerous," Joshua answered, "and if the hill country of Ephraim is too small for you, go up into the forest and clear land for yourselves there in the land of the Perizzites and Rephaites."

- 16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뽕 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 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The people of Joseph replied, "The hill country is not enough for us, and all the Canaanites who live in the plain have chariots fitted with iron, both those in Beth Shan and its settlements and those in the Valley of Jezreel."

- 17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But Joshua said to the tribes of Joseph—to Ephraim and Manasseh—"You are numerous and very powerful. You will have not only one allotment

- 18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 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but the forested hill country as well. Clear it, and its farthest limits will be yours; though the Canaanites have chariots fitted with iron and though they are strong, you can drive them out."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2

목

땅 분배와
하나님의 명령

수 18:1-10

- 1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 2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지파라
- 3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 4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 5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 6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 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 7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와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 8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 9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 10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3

금

하늘을 여신 하나님,
영광의 왕을 맞이하라

시 24:1-10

- 1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와
의 것이로다

The earth is the LORD's, and everything in it, the
world, and all who live in it;

- 2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for he founded it on the seas and established it on
the waters.

- 3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
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Who may ascend the mountain of the LORD? Who
may stand in his holy place?

- 4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
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
니하는 자로다

The one who has clean hands and a pure heart, who
does not trust in an idol or swear by a false god.

- 5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They will receive blessing from the LORD and
vindication from God their Savior.

- 6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
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Such is the generation of those who seek him, who
seek your face, God of Jacob.

- 7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Lift up your heads, you gates; be lifted up, you
ancient doors, that the King of glory may come in.

- 8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
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Who is this King of glory? The LORD strong and
mighty, the LORD mighty in battle.

- 9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Lift up your heads, you gates; lift them up, you
ancient doors, that the King of glory may come in.

- 10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Who is he, this King of glory? The LORD Almighty—
he is the King of glory.

04

토

베냐민 지파의
기업

수 18:11-28

11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12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벳아웬 황무지에 이르며

13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벳엘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앓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호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14 벳호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랏 바알 곧 기랏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15 남쪽 경계는 기랏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16 르바임 골짜기 북쪽 힌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곁으로 내려가고 또 힌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17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18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19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해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20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21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22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벳엘과

23 아웜과 바라와 오브라와

24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열두 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25 기브온과 라마와 브에롯과

26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27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28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부앗과 기랏이니 열네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5

주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사 30:18-26

- 18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와 정의를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Yet the LORD longs to be gracious to you; therefore he will rise up to show you compassion. For the LORD is a God of justice. Blessed are all who wait for him!

- 19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People of Zion, who live in Jerusalem, you will weep no more. How gracious he will be when you cry for help! As soon as he hears, he will answer you.

- 20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Although the Lord gives you the bread of adversity and the water of affliction, your teachers will be hidden no more; with your own eyes you will see them.

- 21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Whether you turn to the right or to the left, your ears will hear a voice behind you, saying, "This is the way; walk in it."

- 22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Then you will desecrate your idols overlaid with silver and your images covered with gold; you will throw them away like a menstrual cloth and say to them, "Away with you!"

- 23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 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यो

He will also send you rain for the seed you sow in the ground, and the food that comes from the land will be rich and plentiful. In that day your cattle will graze in broad meadows.

- 24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The oxen and donkeys that work the soil will eat fodder and mash, spread out with fork and shovel.

- 25 크게 살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준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In the day of great slaughter, when the towers fall, streams of water will flow on every high mountain and every lofty hill.

- 26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The moon will shine like the sun, and the sunlight will be seven times brighter, like the light of seven full days, when the LORD binds up the bruises of his people and heals the wounds he inflicted.

06

월

넘어짐을 고치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호 14:1-9

1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Return, Israel, to the LORD your God. Your sins have
been your downfall!

2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
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
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Take words with you and return to the LORD. Say to
him: "Forgive all our sins and receive us graciously,
that we may offer the fruit of our lips."

3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
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금홍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Assyria cannot save us; we will not mount warhorses.
We will never again say 'Our gods' to what our own
hands have made, for in you the fatherless find
compassion."

4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
니라
"I will heal their waywardness and love them freely,
for my anger has turned away from them."

5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
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
가 박힐 것이라
I will be like the dew to Israel; he will blossom like a
lily. Like a cedar of Lebanon he will send down his
roots;

6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
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
으리니
his young shoots will grow. His splendor will be like
an olive tree, his fragrance like a cedar of Lebanon.

his young shoots will grow. His splendor will be like
an olive tree, his fragrance like a cedar of Lebanon.

7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 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
도주 같이 되리라
People will dwell again in his shade; they will flourish
like the grain, they will blossom like the vine—
Israel's fame will be like the wine of Lebanon.

People will dwell again in his shade; they will flourish
like the grain, they will blossom like the vine—
Israel's fame will be like the wine of Lebanon.

8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
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Ephraim, what more have I to do with idols? I will
answer him and care for him. I am like a flourishing
juniper; your fruitfulness comes from me."

Ephraim, what more have I to do with idols? I will
answer him and care for him. I am like a flourishing
juniper; your fruitfulness comes from me."

9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와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Who is wise? Let them realize these things. Who is
discerning? Let them understand. The ways of the
LORD are right; the righteous walk in them, but the
rebellious stumble in them.

Who is wise? Let them realize these things. Who is
discerning? Let them understand. The ways of the
LORD are right; the righteous walk in them, but the
rebellious stumble in them.

07

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에
내리는 복

시 128:1-6

- 1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Blessed are all who fear the LORD, who walk in
obedience to him.

- 2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You will eat the fruit of your labor; blessings and
prosperity will be yours.

- 3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
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
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Your wife will be like a fruitful vine within your
house; your children will be like olive shoots around
your table.

- 4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
리로다

Yes, this will be the blessing for the man who fears
the LORD.

- 5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May the LORD bless you from Zion; may you see the
prosperity of Jerusalem all the days of your life.

- 6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
강이 있을지로다

May you live to see your children's children— peace
be on Israel.

08

수

믿음의 대를 이어가라

신 6:4-9

- 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 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 6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These commandments that I give you today are to be on your hearts.

- 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Impress them on your children. Talk about them when you sit at home and when you walk along the road, when you lie down and when you get up.

- 8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Tie them as symbols on your hands and bind them on your foreheads.

- 9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Write them on the doorframes of your houses and on your gates.

09

목

말씀으로
밝히는 길

시 119:97-105

97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Oh, how I love your law! I meditate on it all day long.

98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Your commands are always with me and make me wiser than my enemies.

99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I have more insight than all my teachers, for I meditate on your statutes.

100 주의 법도들을 지키므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I have more understanding than the elders, for I obey your precepts.

101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I have kept my feet from every evil path so that I might obey your word.

102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I have not departed from your laws, for you yourself have taught me.

103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How sweet are your words to my taste, sweeter than honey to my mouth!

104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I gain understanding from your precepts; therefore I hate every wrong path.

105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Your word is a lamp for my feet, a light on my path.

여호수아의 기업

수 19:49-51

49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
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When they had finished dividing the land into its
allotted portions, the Israelites gave Joshua son of
Nun an inheritance among them,

50 곧 여호와와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
읍 에브라임 산지 딤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
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as the LORD had commanded. They gave him the
town he asked for—Timnath Serah in the hill country
of Ephraim. And he built up the town and settled
there.

51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
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
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누는 기
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
더라

These are the territories that Eleazar the priest,
Joshua son of Nun and the heads of the tribal clans
of Israel assigned by lot at Shiloh in the presence
of the LORD at the entrance to the tent of meeting.
And so they finished dividing the land.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1

토

도피성의
은혜

수 20:1-9

- 1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Then the LORD said to Joshua:

-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Tell the Israelites to designate the cities of refuge, as I instructed you through Moses,

- 3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so that anyone who kills a person accidentally and unintentionally may flee there and find protection from the avenger of blood.

- 4 이 성읍들 중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When they flee to one of these cities, they are to stand in the entrance of the city gate and state their case before the elders of that city. Then the elders are to admit the fugitive into their city and provide a place to live among them.

- 5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If the avenger of blood comes in pursuit, the elders must not surrender the fugitive, because the fugitive killed their neighbor unintentionally and without malice aforethought.

- 6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They are to stay in that city until they have stood trial before the assembly and until the death of the high priest who is serving at that time. Then they may go back to their own home in the town from which they fled."

- 7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랴아르바 곧 헤브론과

So they set apart Kedesh in Galilee in the hill country of Naphtali, Shechem in the hill country of Ephraim, and Kiriath Arba (that is, Hebron) in the hill country of Judah.

- 8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East of the Jordan (on the other side from Jericho) they designated Bezer in the wilderness on the plateau in the tribe of Reuben, Ramoth in Gilead in the tribe of Gad, and Golan in Bashan in the tribe of Manasseh.

- 9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Any of the Israelites or any foreigner residing among them who killed someone accidentally could flee to these designated cities and not be killed by the avenger of blood prior to standing trial before the assembly.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2

주일

입다의 승리와
서원 이행

삿 11:29-40

- 29 이에 여호와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Then the Spirit of the LORD came on Jephthah. He crossed Gilead and Manasseh, passed through Mizpah of Gilead, and from there he advanced against the Ammonites.

- 30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And Jephthah made a vow to the LORD: "If you give the Ammonites into my hands,

- 31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whatever comes out of the door of my house to meet me when I return in triumph from the Ammonites will be the LORD's, and I will sacrifice it as a burnt offering."

- 32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Then Jephthah went over to fight the Ammonites, and the LORD gave them into his hands.

- 33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이십 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뮌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He devastated twenty towns from Aroer to the vicinity of Minnith, as far as Abel Keramim. Thus Israel subdued Ammon.

- 34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독녀라

When Jephthah returned to his home in Mizpah, who should come out to meet him but his daughter, dancing to the sound of timbrels! She was an only child. Except for her he had neither son nor daughter.

- 35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When he saw her, he tore his clothes and cried, "Oh no, my daughter! You have brought me down and I am devastated. I have made a vow to the LORD that I cannot break."

- 36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My father,” she replied, “you have given your word to the LORD. Do to me just as you promised, now that the LORD has avenged you of your enemies, the Ammonites.

- 37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But grant me this one request,” she said. “Give me two months to roam the hills and weep with my friends, because I will never marry.”

- 38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You may go,” he said. And he let her go for two months. She and her friends went into the hills and wept because she would never marry.

- 39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에 관습이 되어

After the two months, she returned to her father, and he did to her as he had vowed. And she was a virgin. From this comes the Israelite tradition

- 40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that each year the young women of Israel go out for four days to commemorate the daughter of Jephthah the Gileadite.

13

월

하나님을
경외하라

전 5:1-7

- 1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Guard your steps when you go to the house of God. Go near to listen rather than to offer the sacrifice of fools, who do not know that they do wrong.

- 2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Do not be quick with your mouth, do not be hasty in your heart to utter anything before God. God is in heaven and you are on earth, so let your words be few.

- 3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A dream comes when there are many cares, and many words mark the speech of a fool.

- 4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When you make a vow to God, do not delay to fulfill it. He has no pleasure in fools; fulfill your vow.

- 5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It is better not to make a vow than to make one and not fulfill it.

- 6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Do not let your mouth lead you into sin. And do not protest to the temple messenger, "My vow was a mistake." Why should God be angry at what you say and destroy the work of your hands?

- 7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Much dreaming and many words are meaningless. Therefore fear God.

신실하신
하나님

수 21:41-45

- 41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마흔여덟 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The towns of the Levites in the territory held by the Israelites were forty-eight in all, together with their pasturelands.

- 42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Each of these towns had pasturelands surrounding it; this was true for all these towns.

- 43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So the LORD gave Israel all the land he had sworn to give their ancestors, and they took possession of it and settled there.

- 44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므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The LORD gave them rest on every side, just as he had sworn to their ancestors. Not one of their enemies withstood them; the LORD gave all their enemies into their hands.

- 45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Not one of all the LORD's good promises to Israel failed; every one was fulfilled.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의리의
세 가문

수 22:1-6

- 1 그 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Then Joshua summoned the Reubenites, the Gadites and the half-tribe of Manasseh

- 2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와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and said to them, "You have done all that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commanded, and you have obeyed me in everything I commanded.

- 3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For a long time now—to this very day—you have not deserted your fellow Israelites but have carried out the mission the LORD your God gave you.

- 4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와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Now that the LORD your God has given them rest as he promised, return to your homes in the land that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gave you on the other side of the Jordan.

- 5 오직 여호와와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But be very careful to keep the commandment and the law that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gave you: to love the LORD your God, to walk in obedience to him, to keep his commands, to hold fast to him and to serve him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 6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Then Joshua blessed them and sent them away, and they went to their homes.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증거의 제단 사건 1

수 22:10-20

10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 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 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 었더라

11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 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12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13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14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열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15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16 여호와와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17 브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18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19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와 성막이 있는 여호와와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20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하므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증거의 제단
사건 2

수 22:21-29

21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22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나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23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나 여호와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24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25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26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27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28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29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증거의 제단
사건 3

수 22:30-34

- 30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 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When Phinehas the priest and the leaders of the community—the heads of the clans of the Israelites—heard what Reuben, Gad and Manasseh had to say, they were pleased.

- 31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And Phinehas son of Eleazar, the priest, said to Reuben, Gad and Manasseh, "Today we know that the LORD is with us, because you have not been unfaithful to the LORD in this matter. Now you have rescued the Israelites from the LORD's hand."

- 32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Then Phinehas son of Eleazar, the priest, and the leaders returned to Canaan from their meeting with the Reubenites and Gadites in Gilead and reported to the Israelites.

- 33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They were glad to hear the report and praised God. And they talked no more about going to war against them to devastate the country where the Reubenites and the Gadites lived.

- 34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엿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And the Reubenites and the Gadites gave the altar this name: A Witness Between Us—that the LORD is God.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9

주일

길르앗과
에브라임의 전쟁

삿 12:1-7

- 1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The Ephraimite forces were called out, and they crossed over to Zaphon. They said to Jephthah, "Why did you go to fight the Ammonites without calling us to go with you? We're going to burn down your house over your head."

- 2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Jephthah answered, "I and my people were engaged in a great struggle with the Ammonites, and although I called, you didn't save me out of their hands."

- 3 나는 너희가 도와 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When I saw that you wouldn't help, I took my life in my hands and crossed over to fight the Ammonites, and the LORD gave me the victory over them. Now why have you come up today to fight me?"

- 4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Jephthah then called together the men of Gilead and fought against Ephraim. The Gileadites struck them down because the Ephraimites had said, "You Gileadites are renegades from Ephraim and Manasseh."

- 5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 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나라 하면

The Gileadites captured the fords of the Jordan leading to Ephraim, and whenever a survivor of Ephraim said, "Let me cross over," the men of Gilead asked him, "Are you an Ephraimite?" If he replied, "No,"

- 6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 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사만 이천 명이었더라

they said, "All right, say 'Shibboleth.'" If he said, "Sibboleth," because he could not pronounce the word correctly, they seized him and killed him at the fords of the Jordan. Forty-two thousand Ephraimites were killed at that time.

- 7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육 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으매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Jephthah led Israel six years. Then Jephthah the Gileadite died and was buried in a town in Gilead.

20

월

다툼의 근원,
마음의 정욕

약 4:1-10

1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
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
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2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
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
기 때문이요

3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4 간음한 여인들이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
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5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
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
된 줄로 생각하느냐

6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7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
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8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
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9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
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10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

수 23:1-10

- 1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 2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 3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 4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 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 5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 6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 7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 8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 9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 10 너희 중 한 사람이 천 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수 23:11-16

- 11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So be very careful to love the LORD your God.

- 12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But if you turn away and ally yourselves with the survivors of these nations that remain among you and if you intermarry with them and associate with them,

- 13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then you may be sure that the LORD your God will no longer drive out these nations before you. Instead, they will become snares and traps for you, whips on your backs and thorns in your eyes, until you perish from this good land, which the LORD your God has given you.

- 14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Now I am about to go the way of all the earth. You know with all your heart and soul that not one of all the good promises the LORD your God gave you has failed. Every promise has been fulfilled; not one has failed.

- 15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But just as all the good things the LORD your God has promised you have come to you, so he will bring on you all the evil things he has threatened, until the LORD your God has destroyed you from this good land he has given you.

- 16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If you violate the covenant of the LORD your God, which he commanded you, and go and serve other gods and bow down to them, the LORD's anger will burn against you, and you will quickly perish from the good land he has given you."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회고

수 24:1-13

- 1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겔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 2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 3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 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 4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 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 5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 6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향해까지 쫓아오므로
- 7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 8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 9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브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 10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 11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 12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 13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4

금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수 24:14-24

14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16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7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18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19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20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21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22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23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 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24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여호수아의 죽음

수 24:25-33

- 25 그 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On that day Joshua made a covenant for the people, and there at Shechem he reaffirmed for them decrees and laws.

- 26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와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And Joshua recorded these things in the Book of the Law of God. Then he took a large stone and set it up there under the oak near the holy place of the LORD.

- 27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 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See!" he said to all the people. "This stone will be a witness against us. It has heard all the words the LORD has said to us. It will be a witness against you if you are untrue to your God."

- 28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Then Joshua dismissed the people, each to their own inheritance.

- 29 이 일 후에 여호와와 종 누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십 세에 죽으매

After these things, Joshua son of Nun, the servant of the LORD, died at the age of a hundred and ten.

- 30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딘낫 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딘낫 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아스 산 북쪽이었더라

And they buried him in the land of his inheritance, at Timnath Serah in the hill country of Ephraim, north of Mount Gaash.

- 31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Israel served the LORD throughout the lifetime of Joshua and of the elders who outlived him and who had experienced everything the LORD had done for Israel.

- 32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 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And Joseph's bones, which the Israelites had brought up from Egypt, were buried at Shechem in the tract of land that Jacob bought for a hundred pieces of silver from the sons of Hamor, the father of Shechem. This became the inheritance of Joseph's descendants.

- 33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으매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And Eleazar son of Aaron died and was buried at Gibeah, which had been allotted to his son Phinehas in the hill country of Ephraim.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6

주일

세 명의 사사들의
안타까움

삿 12:8-15

- 8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After him, Ibzan of Bethlehem led Israel.

- 9 그가 아들 삼십 명과 딸 삼십 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삼십 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칠 년이라

He had thirty sons and thirty daughters. He gave his daughters away in marriage to those outside his clan, and for his sons he brought in thirty young women as wives from outside his clan. Ibzan led Israel seven years.

- 10 입산이 죽으매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Then Ibzan died and was buried in Bethlehem.

- 11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After him, Elon the Zebulunite led Israel ten years.

- 12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으매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Then Elon died and was buried in Aijalon in the land of Zebulun.

- 13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After him, Abdon son of Hillel, from Pirathon, led Israel.

- 14 그에게 아들 사십 명과 손자 삼십 명이 있어 어린 나귀 칠십 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팔 년이라

He had forty sons and thirty grandsons, who rode on seventy donkeys. He led Israel eight years.

- 15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으매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Then Abdon son of Hillel died and was buried at Pirathon in Ephraim, in the hill country of the Amalekites.

27

월

이름만 남은
신앙을 깨우라

계 3:1-6

- 1 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To the angel of the church in Sardis write: These are the words of him who holds the seven spirits of God and the seven stars. I know your deeds; you have a reputation of being alive, but you are dead.

- 2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Wake up!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for I have found your deeds unfinished in the sight of my God.

- 3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 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를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Remember, therefore, what you have received and heard; hold it fast, and repent. But if you do not wake up, I will come like a thief, and you will not know at what time I will come to you.

- 4 그러나 사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Yet you have a few people in Sardis who have not soiled their clothes. They will walk with me, dressed in white, for they are worthy.

- 5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The one who is victorious will, like them, be dressed in white. I will never blot out the name of that person from the book of life, but will acknowledge that name before my Father and his angels.

- 6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Whoever has ears, let the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

신 1:1-8

- 1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These are the words Moses spoke to all Israel in the wilderness east of the Jordan—that is, in the Arabah—opposite Suph, between Paran and Tophel, Laban, Hazeroth and Dizahab.

- 2 호렙 산에서 세일 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룻길이었더라

(It takes eleven days to go from Horeb to Kadesh Barnea by the Mount Seir road.)

- 3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In the fortieth year, on the first day of the eleventh month, Moses proclaimed to the Israelites all that the LORD had commanded him concerning them.

- 4 그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죽인 후라

This was after he had defeated Sihon king of the Amorites, who reigned in Heshbon, and at Edrei had defeated Og king of Bashan, who reigned in Ashtaroth.

- 5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 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East of the Jordan in the territory of Moab, Moses began to expound this law, saying:

- 6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 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The LORD our God said to us at Horeb, "You have stayed long enough at this mountain.

- 7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Break camp and advance into the hill country of the Amorites; go to all the neighboring peoples in the Arabah, in the mountains, in the western foothills, in the Negev and along the coast, to the land of the Canaanites and to Lebanon, as far as the great river, the Euphrates.

- 8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See, I have given you this land. Go in and take possession of the land the LORD swore he would give to your fathers—to Abraham, Isaac and Jacob—and to their descendants after them."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지혜로운 리더십의
세움

신 1:9-18

- 9 그 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At that time I said to you, "You are too heavy a burden for me to carry alone.

- 10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 같이 많거니와

The LORD your God has increased your numbers so that today you are as numerous as the stars in the sky.

- 11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 보다 천 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May the LORD, the God of your ancestors, increase you a thousand times and bless you as he has promised!

- 12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But how can I bear your problems and your burdens and your disputes all by myself?

- 13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 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Choose some wise, understanding and respected men from each of your tribes, and I will set them over you."

- 14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You answered me, "What you propose to do is good."

- 15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 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 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So I took the leading men of your tribes, wise and respected men, and appointed them to have authority over you—as commanders of thousands, of hundreds, of fifties and of tens and as tribal officials.

- 16 내가 그 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 할 것이라

And I charged your judges at that time, "Hear the disputes between your people and judge fairly, whether the case is between two Israelites or between an Israelite and a foreigner residing among you.

- 17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려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Do not show partiality in judging; hear both small and great alike. Do not be afraid of anyone, for judgment belongs to God. Bring me any case too hard for you, and I will hear it."

- 18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 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And at that time I told you everything you were to do.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30

목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와 그 결과

신 1:19-33

19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 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20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21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22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아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23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둘을 택하매

24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 곳을 정탐하고

25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26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27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므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28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29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0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1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 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32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33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첩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불신의
결과

신 1:34-46

- 34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 35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 36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 37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 38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 39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 40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41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42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43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44 그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 떼 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 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룬지라

45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46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 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025.
10

순예배 가이드

01

1. 10월 셋째 주 (10/12-18)

길르앗과 에브라임의 전쟁 (삿 12:1-7)

2. 10월 넷째 주 (10/19-25)

세 명의 사사들의 안타까움 (삿 12:8-15)

3. 10월 다섯째 주 (10/26-11/1)

삼손이 태어나다 (삿 13:1-25)

4. 11월 첫째 주 (11/2-8)

천국이 있습니다 (계 21:1-8)

WORSHIP

03

[순예배 가이드] 10월 셋째 주 (10/12-18)

길르앗과 에브라임의 전쟁

사사기 12:1-7

지난주 본문 요약 | 입다의 승리와 서원 이행 (삿 11:29-40)

입다는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 앞서 한 서원기도 때문에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나눔

관찰/해석

- 1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The Ephraimite forces were called out, and they crossed over to Zaphon. They said to Jephthah, "Why did you go to fight the Ammonites without calling us to go with you? We're going to burn down your house over your head."

- 2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Jephthah answered, "I and my people were engaged in a great struggle with the Ammonites, and although I called, you didn't save me out of their hands."

관찰/해석

- 3 나는 너희가 도와 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When I saw that you wouldn't help, I took my life in my hands and crossed over to fight the Ammonites, and the LORD gave me the victory over them. Now why have you come up today to fight me?"

- 4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Jephthah then called together the men of Gilead and fought against Ephraim. The Gileadites struck them down because the Ephraimites had said, "You Gileadites are renegades from Ephraim and Manasseh."

- 5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 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물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The Gileadites captured the fords of the Jordan leading to Ephraim, and whenever a survivor of Ephraim said, "Let me cross over," the men of Gilead asked him, "Are you an Ephraimite?" If he replied, "No,"

관찰/해석

- 6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 때
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사만 이천 명
이었던라

they said, "All right, say 'Shibboleth.'" If he said, "Sibboleth," because he could not pronounce the word correctly, they seized him and killed him at the fords of the Jordan. Forty-two thousand Ephraimites were killed at that time.

- 7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육 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으매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Jephthah led Israel six years. Then Jephthah the Gileadite died and was buried in a town in Gilead.

* **십볼렛(십볼렛)(6절):** '이삭', '강의 흐름'이라는 뜻으로, 에브라임 사람과 길르앗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 발음해보도록 제시한 말입니다.

적용

ME

OTHER

기도제목 우리순 기도제목

이름	기도제목	응답

중보 기도제목

- 어떠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 분열과 갈등이 만연해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 행하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 공동체의 균열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삿 12:3]

나는 너희가 도와 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04

[순예배 가이드] 10월 넷째 주 (10/19-25)

세 명의 사사들의 안타까움

사사기 12:8-15

지난주 본문 요약 | 길르앗과 에브라임의 전쟁 (삿 12:1-7)

에브라임 사람들은 암몬과 싸워 승리한 입다를 향해, 전투에 부르지 않은 것을 빌미로 위협을 하였고, 하나님이 암몬을 그 손에 넘겨주었다고 했으며, 결국 길르앗과 에브라임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난주 설교 나눔

관찰/해석

8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After him, Ibzan of Bethlehem led Israel.

9 그가 아들 삼십 명과 딸 삼십 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삼십 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칠 년이라

He had thirty sons and thirty daughters. He gave his daughters away in marriage to those outside his clan, and for his sons he brought in thirty young women as wives from outside his clan. Ibzan led Israel seven years.

10 입산이 죽으매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Then Ibzan died and was buried in Bethlehem.

11 그 뒤를 이어 스볼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After him, Elon the Zebulunite led Israel ten years.

12 스볼론 사람 엘론이 죽으매 스볼론 땅 아알론에 장사되었더라

Then Elon died and was buried in Aijalon in the land of Zebulun.

관찰/해석

* **스볼론(11절):** 이스라엘 열 두 지파 가운데 하나로, 아굽의 예언대로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영토를 넓히고 해로를 개척한 지파입니다. 훗날 예수님도 스볼론 땅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역을 행하신 것으로 이사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신 곳입니다.

* **아알론(12절):** '사슴'이라는 뜻으로, 나사렛 북쪽 스볼론 땅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관찰/해석

13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
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After him, Abdon son of Hillel, from Pirathon, led Israel.

14 그에게 아들 사십 명과 손자 삼십 명이 있어
어린 나귀 칠십 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
라엘의 사사가 된 지 팔 년이라

He had forty sons and thirty grandsons, who rode on seventy donkeys. He led Israel eight years.

15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으매 에
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
사되었더라

Then Abdon son of Hillel died and was buried at Pirathon in Ephraim, in the hill country of the Amalekites.

적용

ME

OTHER

기도제목 우리순 기도제목

이름	기도제목	응답

중보 기도제목

1.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우리의 진정한 사사이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3. 세대를 걸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서게 하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삿 12:12]

스볼론 사람 엘론이 죽으매 스볼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05

[순예배 가이드] 10월 다섯째 주 (10/26-11/1)

삼손이 태어나다

사사기 13:1-25

지난주 본문 요약 | 세 명의 사사들의 안타까움 (삿 12:8-15)

짧은 기간 동안 세명의 사사, 입산과 엘론, 압돈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나, 본격적으로 쓰임받기 전에 역사의 저편으로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나눔

관찰/해석

- 1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십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 2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 3 여호와와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관찰/해석

- 4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 5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 6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우므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 7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 나실인(5절):** '구별된 자'라는 뜻으로, 특별한 헌신을 위해 세상과 단절하고 스스로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한 자입니다. 나실인은 특히 세 가지 ①포도나무에서 나는 소산물은 먹지 말 것. ②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 ③서원 기간 동안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를 금해야 했습니다.

관찰/해석

- 8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낱을 아들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 9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 10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 11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이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 12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 13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관찰/해석

- 14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 15 마노아가 여호와와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 16 여호와와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와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 었더라
- 17 마노아가 또 여호와와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 18 여호와와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 19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 기묘자(18절):** 문자적으로 '경이로운 일', '불가사이한 것'이라는 뜻으로, 인간의 이성과 지혜, 상상과 감각으로써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분, 초월적인 능력과 성품으로 오묘하신 섭리를 수행하시는 분, 곧 '하나님'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훗날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관찰/해석

- 20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와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 21 여호와와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와 사자인 줄 알고
- 22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 23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 24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 25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와 그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적용

ME

OTHER

기도제목 우리순 기도제목

이름	기도제목	응답

중보 기도제목

1.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을 지켜 행하는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2. 복된 소식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3. 마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겸손하게 엎드리는 순종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삿 12:24-25]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와 그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01

[순예배 가이드] 11월 첫째 주 (11/2-8)

천국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1-8

지난주 본문 요약 | 삼손이 태어나다 (삿 13:1-25)

하나님께서서는 블레셋의 손에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마노아의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통해 나실인인 삼손을 낳게 하셨습니다.

지난주 설교 나눔

관찰/해석

- 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 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관찰/해석

- 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 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 5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 **새 하늘과 새 땅(1절):** 새로운 세상, 죄로 오염된 기존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새롭게 창조될 온전한 세상,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세상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보좌(3절):** 권력자, 귀빈, 통치자가 앉는 권위와 위엄의 자리입니다. 주로 '왕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며,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마지막 날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통치 자리를 말합니다.

관찰/해석

- 6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 7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 8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 **알파와 오메가(6절):**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A)와 끝글자(Ω) 를 나타낸 말로 ‘처음과 나중’, ‘완전함’, ‘충만함’, ‘전 존재’ 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자신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신적인 명칭으로, 창조자요, 완성자이시며, 유일무이 하고 절대적인 존재임을 뜻하는 말입니다.

* **둘째 사망(8절):**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간이 겪는 육신의 죽음(첫째 사망)에 비견되는 말로, 세상 종말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 이루어질 영원한 멸망을 가리킵니다.

적용

ME

OTHER

기도제목 우리순 기도제목

이름	기도제목	응답

중보 기도제목

1. 최후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옴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2.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그 때를 기대하며, 지금 주어진 이 땅에서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3.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 중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계 21: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개인기도제목 - 1주차

[illegible]

개인기도제목 - 2주차

[illegible]



개인기도제목 - 3주차

[illegible]

개인기도제목 - 4주차

[illegible]

2025.
10

SBSB 간증

02

1. 안수해 집사 (C강남공동체)
2. 이길숙 권사 (W강남공동체)
3. 이유진L 성도 (N서초공동체)
4. 박승혜 청년 (청년2부)

말씀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안수해 집사 (C강남공동체)



SBSB는 처음 광고 시간에 소개되었을 때부터 꼭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강의를 들었던 성도님들이 “꼭 들어보라”라고 권해주셔서 기회를 기다렸지만, 수련회 등 뉴젠 사역 일정이 겹쳐 계속 참여하지 못하다가, 드디어 이번 여름 은혜 가운데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은 에이비 조장으로의 섬김, 인도네시아 선교, 커피브레이크 등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SBSB까지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더욱 큰 감사였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자랑할 만한 양육 프로그램들이 많지만 대부분 7주에서 15주 정도의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SBSB는 단 3주 동안 진행되어 부담 없이 설레는 마음으로 첫 시간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3주간의 SBSB 강의는, 먼저 참여했던 성도님들께 들었던 이야기들을 직접 경험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모든 시청각 자료(심지어 미각 자료까지) 하나하나가 귀하고 소중했으며, 그 준비를 위해 쏟으신 정성과 사랑이 느껴져 감사했습니다. 특히 강정현 사모

님께서 성경을 한 절이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 열정을 다해 강의하시는 모습은 참으로 존경스러웠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기를 다져 주시려는 마음이 따뜻하게 전해졌습니다.

SBSB에서는 매주 성경책을 품에 안고 “말씀의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종이 성경을 지참해야 했고, PPT에 적힌 말씀을 읽는 대신 직접 성경을 찾아 읽어야 했습니다. 오랜만에 전체가 함께 성경을 넘기며 구절을 찾는 과정은 귀찮기보다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성경의 맥을 잡도록 인도해 주셨고, 성경이 진리일 수 밖에 없는 이유와 구약 속에 예표된 예수님의 모습까지 알기 쉽게 풀어주셔서 새신자뿐 아니라 기존 성도들에게도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 없이 시작했던 SBSB였지만, 마칠 때는 오히려 말씀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하는 시간은 곧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며, 살아 역사하시는 레마의 말씀이 제 안에 임하는 시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말씀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책이 더욱 귀하고 사랑스러운 책이 되었습니다

이길숙 권사 (W강남공동체)



매번 SBSB 신청 광고가 나올 때마다 “할까? 말까?” 망설이는 사이에 인원은 금세 마감되곤 했습니다. ‘좀 더 서두를걸..’ 하는 아쉬움과, ‘왕초보 성경공부인데, 괜

히 신청했다가 내 무지함만 드러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SBSB를 경험하신 분들이 하나같이 “정말 좋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용기를 내어, 이번 6월 광고가 뜨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무더운 여름 끝자락, 조금은 느슨해진 시기에 드디어 SBSB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시간 ‘기독교 에센스’와 ‘구약 전체 차트와 창세기’ 수업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지금도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지금은 바로 “내가” 바통을 이어받아 달려가고 있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뜨겁게 와닿았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살았던 요셉을 통하여, 연약한 나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며 달려가다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바통을 잘 이어주고 싶다는 소망도 생겼습니다. 또한 ‘성경 이름 단축표’, 신·구약 목차, 성지 지도, 구약·신약 시대별 차트 등 사모

님께서 준비해 주신 다양한 자료들을 받을 때마다, 마치 어미새가 아기새에게 먹이를 부지런히 물어다 주듯 우리에게 더 많이 가르쳐 주시려는 사랑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제게 큰 감동과 감사로 다가왔습니다.

구약 차트를 공부하면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울림을 가족들과도 나누며,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 주님을 기억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모님께서 늘 “잘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하시며 눈높이에 맞춰 칭찬해 주시고, 왕초보 같은 질문에도 친절히 답해 주셔서 제 마음속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강의 속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3주의 시간이 너무 짧게만 느껴졌습니다.

이번 SBSB를 통해 제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성경책이 더욱 귀하고 사랑스러운 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다는 소망이 제 안에 가득 생기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경을 더욱 사랑합니다.”

끝으로, 따뜻하면서도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사모님, 늘 기도로 중보해 주신 목사님,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맛있는 간식으로 섬겨 주신 리더십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성경을 더 사모하며 묵상하기로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유진L 성도 (N서초공동체)



에이비에 참여하고 있던 중 팀장님의 권유로 “SBSB 왕초보 성경공부”가 좋으니 참여하면 좋겠다는 권유를 받은 저는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

되었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하는 교만한 마음과 반신반의로 “SBSB 왕초보 성경공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첫 강의부터 저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린 강정현 사모님의 강의는 3시간이 넘는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정도로 너무나도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부터 교재를 만들어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참 의미 있고 기뻐서 이전에 프린트물로 먼저 강의를 들었던 아들에게 “나는 이번부터 나온 새로운 교재로 수업한다~!!”라고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저는 주일학교의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주변에 교회에 가자고 권유한 사람이 없어서 어릴 때 교회를 갔던 기억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믿는 분들을 보면 모태 신앙들도 많고 어릴 때 교회를 다닌 분들도 많아서 참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부럽기도 하고 저도 주일학교의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

었습니다.

조그마한 체구에서 어떻게 그렇게 큰 파워가 나오는지 열정으로 강의하시는 강정현 사모님의 수업은 정말 재미있었고 색연필로 색칠을 하면서 듣는 수업은 마치 제가 주일학교의 학생이 된 듯한 기분이 들어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해 주신 주님께 참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기독교 핵심 원리인 원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서 설명해 주셨고 하와가 제일 먼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을 피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러면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건가, 하와로부터 시작된 건가라는 것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해주셔서 성경이 재미있고 더욱 깊게 알아가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가족관계도와 차트, 지도 등 많은 자료를 준비해 오셔서 또 박또박 맑은 목소리로 주일학교 선생님같이 인자한 얼굴로 저희들에게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해 주신 강정현 사모님의 명강의였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자료를 순원들과 나누며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성경을 사모하며 묵상하는 제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SBSB수업을 참여하게 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SBSB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박승혜 청년 (청년2부)



<SBSB>를 들으면서 사모님께서 준비해 주신 정성스러운 교재의 빈칸들을 채우고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성경에서 구약 신약을 통틀어 결국 우리의 어떤 모습에 하나님께

서 기뻐하실까 잠잠히 생각해 보니 ‘가장 낮은 자로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낮은 자’로서의 삶에 능력이 주어짐을 보여주시고, 신약에서는 몸소 ‘낮은 자’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통해 삶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였음에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셨다는 것에서 우리가 얼마나 깊은 곳에서부터 교만이 뿌리 박혀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교만한 백성을 택하셨고 홍해를 건너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저는 왜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셨을까 묵상해 보았고 바다의 바닥이 이 땅에서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가장 낮은 땅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용맹스러운 능력으로 싸움을 승리케 하는 것이 아닌 가장 낮은 땅의 길을 열어 그저 걷게 하셨습니다. 그건 정말 놀라운 사건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역사하실지를 보여주는 핵심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낮은 자로서 믿고 따를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적을 전멸시켜 구원해 주

신다는 겁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땅으로 오셨습니다. 이 낮은 땅으로 오셔서 인간적인 인정과 추앙을 받기 위한 왕좌에 오르시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며 백성들을 고치고 가르치고 핍박까지 받으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실천은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시는 섬김의 헌신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계명하신 것은 저를 세우는 것이 아닌 낮은 자로 서로를 섬기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죄의 뿌리를 SBSB 기간에 있는 특별새벽기도회 말씀을 듣는 중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사도 바울이 말한 ‘죄인 중의 괴수’는 ‘나’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홍해의 바닥을 저에게 떠올려 주시며 제가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있어도 충분하고 마땅하고 과분하다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은 또 한 번 저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순종에 이르게 했습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낮은 자가 되고자 온마음을 다하여 힘쓰지 않으면 참으로 쉽게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는 이 땅에 제 것이 없음을, 저는 아는 것이 없고 저에게 능력이 없음을 통렬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길 간구하며 낮은 자로 사는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자세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끝날까지 홍해의 바닥을 걷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애쓰겠습니다.

2025.
10

화요 커피브레이크 간증

03

1. 이영란A 성도 (E강남공동체)
2. 안성구 성도 (E강남공동체)
3. 장윤희B 성도 (W서초공동체)
4. 임명애 성도 (E서초공동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의 신비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영란A 성도 (E강남공동체)



평소 성경을 한 글자 한 글자 깊이 묵상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에게 “커피브레이크”는 매번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정해진 답보다는 질문을 통해 스스로 말씀을 깨닫게 돕는 귀납적 성경공부는 인도자님의 물론 자매님들의 다양한 삶의 궤적과 어우러져 늘 멋진 스토리로 다가왔으며, 수천 년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경 속 인물들의 상황들과 하나 되어가는 그 시간들은 제 안의 “깊은 억압과 상처”를 치유하는 광선처럼 느껴졌습니다. 늘 은은하고 따듯하면서도 날선 검처럼 예리하게 발견되는 말씀들을 보며, 그야말로 성경은 단 한 글자도 허투루 쓰인 게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동일한 구절도 개개인의 삶에 맞춰 세밀하게 해석되는 것을 보며, 살아 움직이는 말씀의 신비에 또 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일상의 삶에서 성화되고자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도무지 깨지지 않는 저의 자아는 끊임없는 죄책감으로 저를 힘들게 했고, 매 순간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나라 통치 사이에서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는 제 모습이 마치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를 구제도 자주 하는 편임에도 어느 순간 그마저도 저의 의로 느껴지며, 내심 하나님의 복을 바라고 착한 착한 게 아닌가 싶은 정죄감까지 찾아와 최근 생활에 찾아온 여러 문제들에 놀려 힘들어하던 때 커브 사도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제게 이번 사도행전의 고넬료 이야기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한 바 되었으니..” 정체성 면에서 늘 이방인같이 느껴졌던 제게 하나님과 저만 아는 은밀한 메시지로 큰 위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가 옥에 갇힌 사건을 보고 처음엔 사실 맘이 어려웠습니다. 그때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묻는 인도자님의 질문에 “낙심되고 두려웠을 것 같아요. 스테반 순교 이후 이제 좀 부흥될 만 한데 왜 또 바로 고난을 주시나, 조금 편하게 복음 전하면 안 되나요?”라며 발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와 달리 다른 조원 자매님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에 그런 고난이 왔다 해도 성도들은 기도하며 상황과 상관없는 평안을 누리며 기대했을 것 같다”는 나눔을 해 주셨는데 그때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하나님 믿으면 상황적으로 “편안”해야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늘 상황에 일희일비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오늘”의 기쁨 누리지 못하고 “내일”을 염려하느라 불안해하며 전전공공 하루의 일상을 감사로 채우지 못한 저였는데 마지막날 나눔을 통해 상황과 상관없는 평안함을 간구하게 되었고, “가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늘 기도하며 돕고 복음 전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통해 이 시대의 저는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에 맞추어 저에게 필요했던 커브를 하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성구 성도 (E강남공동체)



올해 새로운교회의 새가족 교육을 받고, 공동체에 배정을 받고, 교회의 은혜로운 프로그램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커피브레이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렇게 수료 간증문을 적게 되어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커피브레이크의 장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하 ‘커피브레이크’를 ‘커브’로 하겠습니다)

우선, 커브를 하게 되면서 성경 말씀에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겨서 읽던 성경 말씀을 매주 커브의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서, 왜 성경 말씀에 이렇게 적으셨는지, 어떤 메시지를 저희에게 주려고 하신 것인지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한 구절마다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형제님들과 서로의 의견을 나누다 보면, 성경 속의 스토리가 머릿속에 상상이 되고, 내가 이 상황이었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회개도 하였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말씀을 보며 바울의 옛사람과 거듭나는 모습들, 조력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용기를 얻는 모습들, 이스라엘의 교회들이 힘을 합쳐 다른 교회를 돕는 모습 등 바

울의 전도여행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필사를 하면서 혼자 만나는 성경 말씀도 은혜스럽지만, 이렇게 일상 속에서 생활하고 직장을 마치고 형제님들과 함께 나누는 성경 말씀도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는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커브 모임의 인도자님과 형제님들을 통해 저 역시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성경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매주 커브 모임 전부터 자료와 일정 공유해 주시고 은혜의 모임이 될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이끌어주셨던 인도자님,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로 가장 바쁜 시기임에도 은혜의 시간을 위해 미리 준비해 오시고 나누어 주시던 형제님들 모두 이 시간을 통해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생각해 보면 기도를 매일 하려고 했지만, 말씀은 주일에만 가까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커브를 참여하게 되면서 미리 말씀을 읽어가고 생각해야 했는데, 가끔 볼 때랑 다르게 꾸준히 보는 성경은 서서히 저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꾸준히 보는 성경 말씀이 그동안 낙심하고 있던 제 마음속에서 희망을 가지게 하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주일에만 말씀 보는 사람이 아닌, 모든 시간을 온전히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커브를 통해 충분히 행복한 여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장윤희B 성도 (W서초공동체)



하던 사역을 정리하고 오랜 망설임 끝에 아이들이 다니던 교회로 옮겼습니다. 새신자 교육을 마치고 순에 배정되어 한 학기를 보냈지만 눈에 문제가 있어 잘 다닐 수도 없고 2

년 넘게 친정 부모님을 간병하다 두 분 다 하늘 나라로 보낸 끝이라 너무 지쳐 있어서 뭘 하고 싶다는 의욕도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커피 브레이크를 했는데 좋더라고 권해서 그런가 하던 차에 마침 순장님이 자신도 이번 커브를 등록했다고 권유해 주셔서 별생각 없이 등록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공부인 줄도 몰랐다가 등록하면서 알았는데 일반적인 성경공부가 아닌 질문을 통해 성경을 깊이 살펴보고 나누는 일종의 귀납법적 성경공부였습니다. 한 20여 년 전쯤 이런 식의 성경공부를 접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일반적인 성경공부와 달리 스스로 찾아보고 연구하고 나눴던 그 말씀들은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저의 믿음을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속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 늘 아쉬움이 남아 있었는데 커브 1주를 하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불규칙적으로 읽거나 기계적으로 보는 듯한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다가 한 주 분량을 여러 번 읽고 여러 버전으로 또 읽고 하면서 서서히 그 당시 삶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 주의 담당 목사님의 설명을 따라 최대한 다

른 참고를 보지 않고 성경본문 위주로 공부했고 질문 곳곳에 등장하는 누가의 관점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예전에 설교 말씀들을 통해 들었던 내용들이 떠오르면서 그때 다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새롭게 조명되기도 하고 나눔을 하면서 각 주의 커브 모임이 시작되기 전까지도 다 정리되지 않았던 머릿속 생각들이 확실해지기도 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내용을 나누면서 성경 속에서 이어지는 온갖 방해와 핍박, 성령의 역사에 대한 오해, 편견의 극복, 아직 정립되지 않은 교회 안의 이견으로 인한 논란, 그 당시 사회 상황 등 불합리하고 혼란한 인간 역사의 흐름과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친히 인도하시고 열어 나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침없는 행보가 대비를 이루면서 스펙터클한 하나님의 세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살아오면서 수많은 굴곡을 거치는 가운데 불 같은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고 길고도 어두운 통로를 따라 하염없이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경험했지만 지치고 무더진 것들도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전체적인 그림을 잃어버리고 계속 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즈음 사도행전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당시 사도와 제자들의 뜨거운 믿음이 다시금 도전을 주고 사람보다, 상황보다, 어떤 불가능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저를 여전히 붙들고 있으니 다시 해 봐야 하는 것 같은 격려도 받으며 커브를 통해 충분히 행복한 여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임명애 성도 (E서초공동체)



이번에 사도행전 6장 부터 12장까지 커피 브레이크 말씀 나눔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여러 가지 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커피브레이크는 제가 처음으로 참여한 모임이었기에 더욱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총 10명이 인도자와 조원으로 구성되어 질문을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며 각자가 받은 깨달음과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묻고 대답하고 함께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먼저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초대교회의 일꾼 세움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고 구제와 섬김을 위해 일곱 집사를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는 한두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도 모두가 은사에 따라 섬길 때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 역시 작은 자리에서라도 주어진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고 기쁨으로 교회를 세우는 한 부분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테반의 순교 사건은 제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스테반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원수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복음의 길에는 고난이 따르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영광으로 맞이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저는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낙심할 때가 많지만 스테반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인정과 상급만 바라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 과정에서 가장 깊은 울림을 준 부분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었습니다. 유대인인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임을 깨닫고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며 성령께서 동일하게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된 사건은 교회 역사에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 또한 마음속에 자리 잡은 편견과 장벽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저와 다른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쉽게 배제하거나 복음을 전하는데 소극적이었던 저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커피브레이크를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확장하시며 사람들을 증인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라는 표현을 통해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며 그것이 곧 생명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저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그리고 오늘도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5.
10청년부 수련회
간증

04

1. 김하경A 청년 (주니어청년부)
2. 신다혜A 청년 (주니어청년부)
3. 박예은 청년 (청년1부)
4. 강 진 청년 (청년1부)
5. 변수영 청년 (청년2부)
6. 김은혜P 청년 (청년2부)

2025 새로운교회 청년1부 가을수련회

가을 오후버전일지 - 9월 12일 (금) - 9월 14일 (주일)

새로운교회
청년1부

나의 사랑 청년2부 가을 수련회

in him who brought us life



To My Beloved One

나의 사랑 다윗에게

내가 영원이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려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역대상 17:14

일정 | 2025.09.19.(fri) ~ 09.21.(sun) 장소 | 한국콜마 여주 아카데미



He First! 제가 먼저 받은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겠습니다!

김하경A 청년 (주니어청년부)



그 어느 때보다 변수와 어려움이 많았던 여름 수련회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은혜와 깨달음이 풍성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은혜였

던 이번 여름 수련회는 'He First'라는 주제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를 통독하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여름 사역과 매일같이 이어지는 야근으로 마음은 분주했고,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할 기도 제목들로 쌓여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와 영적 회복을 갈망하며 타는 목마름으로 수련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장과 워십팀으로 섬기느라 수련회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까 걱정했지만, 그 염려는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프로그램과 시간과 순서마다 저를 찾아와 주셨고, 은혜의 폭포수를 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제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했던 첫 주니어청년부 수련회가 떠올랐고, 그때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셨구나"라는 사실이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제 눈앞의 높고 어두

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리고 성과 같을지라도, 거친 파도와 같을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하게 하였고, 저를 억누르는 모든 것들로부터 지키시며 가장 완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욱 굳게 붙들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다 함께 드린 향아리 기도 시간은 깊은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 모두가 합심하여 중보할 때, 생김새와 사는 곳은 다 다르지만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 앞에 나아와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청년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 주니어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황폐한 대학교와 직장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그곳에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실 것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수련회의 주제 말씀처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저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He First! 제가 먼저 받은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며 살아가겠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을 늘 두고 싶습니다

신다혜A 청년 (주니어청년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련회를 통해 필요한 말씀을 받고, 기도로 불타오르는 은혜의 시간을 기대하고 소망할 것입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으로 수련회를 좋아합니다. 가장 바쁜 청년의 시기를 보내며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세상에서 인정받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언제나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그 사랑 안에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싶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받은 은혜는 참 크고 깊었습니다.

돌아보니, 나는 혹시 거짓된 모습으로 살고 있던 건 아닌지, 연약한 모습을 감추고 싶어 다른 모습으로 포장하며 살았던 건 아닌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며,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죄를 마주하고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진실이 무기력해지고 거짓이 익숙해진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께 진리를 구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께서 먼저 빛으로 저를 부르셨고, 자유로 초대하셨기에 저 역시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제 안의 두려움은 결국 거짓된 삶을 추구하면서 생겨난 죄책감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시선을 돌릴 때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고, 사랑의 마음도 잃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 앞에 돌아서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은혜 속에서 저의 약한 모습까지 품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면 그가 행하실 것이며 그때 우리는 주님과 첫사랑을 다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하나씩 배워가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저도 주님을 닮은 사랑의 자리에 서게 되겠지요. 먼저 제 안에 머물러 주신 하나님을 따라, 저 또한 제 마음에 하나님을 늘 두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며 말씀으로 바로 세우길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한 수련회

박예은 청년 (청년1부)



이번 수련회는 시작 전부터 영적 공격이 심했습니다. 찬양팀으로 수련회 한 달 전부터 모여 합주 연습을 해야 하는데 허리 디스크 통증 재발로 인해 앉고 설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번 통증은 유독 낫지를 않아 더 괴로웠는데 많은 이들의 중보 기도도 크게 호전되어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음에 더 큰 감사와 기쁨으로 수련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수련회 말씀은 ‘전심’을 주제로 사울, 다윗, 솔로몬 세 왕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었나갈 때면 늘 그에게 사무엘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나 실패할 때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찾아와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값없이 우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밋세바 사건을 바라보며 습관적으로 짓는 죄와 세상과 타협하고 싶어 했던 마음이 생각났습니다. 회개해야 함을 아는 것까지는 은혜이고, 그 이후 회개한 대로 삶으로 살아내야만 하며 그것이 참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은 후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진정으로 회개할 때 저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둘째 날 오후 새로운교회 다섯 명의 부목사님들과 유쾌하고도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던 ‘5인 5색’ 순서가 기억에 남습니다. 묵회 이전에

영업 1위를 달성하신 비법에 대해 답변해 주실 때, 누군가를 만나기 전이나 중요한 미팅을 나가기 전에 늘 짧게라도 기도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긴장할 때가 있는데 다윗처럼 주께 그 일을 맡겨 드리는 기도를 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찬양팀으로 섬길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찬양팀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그리고 찬양팀 팀원 모두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앞에서 찬양을 이끄는 찬양팀 개개인의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 회중에게도 은혜가 흘러가지 않음을 깨달았고, 섬기는 자로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겠다고 명심했습니다.

찬양팀 건반 반주로 섬기는 시간에 연습한 걸 틀리면 안 된다는 긴장을 느끼던 찰나에 ‘아,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였지’ 하는 마음이 들어 반주보다 찬양의 가사에 집중하고 따라 불렀습니다. 그 순간, 허리 디스크 통증을 아물게 하시고 반주로 섬기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이 큰 은혜로 다가왔고 맘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 기도회 시간이 끝날 때까지 반주로 섬기는 동안 제 허리는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수련회가 끝난 이후 다시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기관 여전히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제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야 전심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강 진 청년 (청년1부)



모태신앙인 저는 전심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찬양 가사와 설교에서 자주 듣는 단어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제 마음 안에서는 그 말의 무게를 깊이 알지 못한 채 그저 ‘온전한 마음’이라는 뜻으로만 이해하며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중 가장 못된 왕은 다윗’이라는 말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 제 안의 다윗은 양 떼가 있는 푸른 풀밭에서 찬양하며 수금 현을 튕는 모습이었는데 밋세바 사건을 통해 다윗이 사울과 솔로몬이 짓지 않았던 죄를 지었다는 사실 앞에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바외모와 돈을 중시하는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다윗은 확실히 두 왕보다 부족해 보입니다. 사울은 준수한 외모에 남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키를 가졌고, 솔로몬은 누가 보아도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인정받지 못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

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심의 행동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게 은혜라는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솔로몬이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에도 주님은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서 저는 감사와 감격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야 전심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넘어져도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용기이며, 저의 오점을 바라보는 대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조용히 귀를 기울입니다. 때로 죄의 돌부리에 넘어져도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며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뵈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나를 찾으시고 부르신 이유

변수영 청년 (청년2부)



<나의 사랑 다윗에게>라는 이번 가을수련회 표어는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고백같이 들렸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 뜻도 ‘사랑받는 자’라는 것에서 이미 마음이 따뜻해졌

고, 하나님께서는 이 수련회를 통해 저에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알려주고 싶으신 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집회 본문이었던 사무엘상 18~20장의 요나단과 다윗의 들판에서의 대화가, 이전과는 다르게, 너무나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다윗을 위해 자신의 등으로 아버지 사울의 모든 분노를 받아내고 다윗과 함께 우는 요나단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다음 왕이 될 자격을 갖춘 자였으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은 자. 그뿐만 아니라, 다윗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자신의 아버지라도 다윗의 대적은 지면에서 끊어지리라고 예언한 자. 그러한 아버지 곁을 죽음의 순간까지 지킨 자. 요나단의 신실함은 정말로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요나단의 사랑을 받은 자, 다윗도 그 죽음의 위급한 상황에서 요나단과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자손에게 인자함을 끊어버리지 말라고 했던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찾아내어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땅까지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사님의 “은혜의 식탁보로 덮어주었다”라는 표현이 큰 감동이었습니다. 므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자였고, 황무지에서 숨어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러한 므비보셋이, 다윗 왕이 자신을 찾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절대로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피해 살았던 죽음이 자신을 찾아온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 왕 앞으로 나아가자 모든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제가 바로 므비보셋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지고 영이 죽어서 육으로 살아가는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 나를 찾아내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내 모든 것을 억지로 바쳐야 하는 것처럼 두려워한 나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찾으시고 부르신 이유는 나를 은혜의 식탁보로 덮기 원하셨습니다. 저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주의 은혜의 식탁에서 주와 함께 더불어 먹는 자, 주의 사랑을 받은 자, 그것이 바로 나였습니다. 죄 가운데 있던 내가 주의 식탁에서 주의 나라를 누리는 것, 주와 교제하는 것. 이것이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어려움에 집중하지 않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와 교제하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의 메마른 기쁨이 회복되고 나의 영이 살아 주를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주 앞으로 나아오는 결단이 앞으로 나의 삶에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 이가 그대!

김은혜P 청년 (청년2부)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찾아오면 팬스레 행복이 피어납니다. 2025년의 가을은 청년2부 수련회 ‘나의 사랑 다윗에게’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한 데이트를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첫 번째 날 저녁 집회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본문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울의 실패부터 사무엘에게 기름부음을 받은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는 장면은 정말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번 수련회에서 만난 다윗은 정말 놀랍고 새로웠습니다. 다윗을 만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가 그대!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전심을 다해 “이가 그대”라고 외치는 소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고독함 속에서 주님을 묵상했던 지난날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홀로 긴 밤을 양들을 지키며, 주님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시는 주님의 안온한 품을 느끼며 사자와 곰을 찢어 죽이며 은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골리앗과의 싸움이라는 역사적인 무대에서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날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은밀한 곳에서 훈련시키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가 부르실 때, 멋지게 다윗처럼

쓰임 받고 싶은 열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새롭게 깨달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의 물맷돌 다섯 개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하기 앞서 물맷돌을 다섯 개나 챙겼습니다. 그것은 혹여나 골리앗을 명중시키지 못할까 염려하여 돌을 더 챙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이미 골리앗 너머에 있는 블레셋의 다른 네 명의 거인들까지 모두 상대하려고 챙긴 것이었습니다(삼하 21장).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순간, 다윗은 주의 백성을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들 전체를 향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높고 넓은 영적 시야를 가지고 전투에 임했습니다. 골리앗 너머까지 볼 수 있는 그의 영적 시야가 무척이나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더 높고 깊은 차원의 영적 시야를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사랑, 다윗입니다. 이전과 같지 아니하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므비보셋을 자녀 삼은 다윗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언약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이 땅 가운데에서 언약하고 절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 빛을 발하는 주의 자녀로 살 것입니다. 2025년 가을에도 변함없이 강렬한 사랑으로 저를 안아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세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2025.
10

러브 미니스트리 단체 소개:

05

러브더월드



러브 미니스트리 단체소개

러브더월드를 소개합니다!

미혼 한부모 가정을 돕는
러브더월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에 비춰 볼 때 더욱이 자녀를 홀로 키우는 ‘미혼모·미혼부’ 그리고 ‘한부모 가정’은 더 큰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일상은 위태롭기 그지없습니다. 아이와 부모 모두 존재 자체로 축복받아야 마땅하지만 현실은 출생신고부터 생계 유지에 사회적 편견까지 ‘삼중고’를 겪으며 불안한 외출 타기를 이어갑니다. 이런 기댈 곳 없는 미혼부모와 아이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건네는 ‘러브더월드’(Love the World)가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한 러브더월드 대표 박대원 목사와 아내 서지형 사모는 자녀를 입양하면서 미혼 한부모 가정 사역에 발을 들이며 “미혼모와 미혼부는 아이의 생명을 지킨 용감한 부모”라고 외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러브더월드’라는 이름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에서 따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생각으로 미혼모·미혼부와 자녀들, 그리고 한부모 가정을 돕습니다. 미혼부모들의 임신·출산·양육부터 경제적·정서적 자립까지 도우며 그동안 이곳을 거친 이들의 수는 이제 2,000가정이 넘습니다. 미혼모나 미혼부의 자녀가 건강한 성인이 될 때까지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회를 통해 많은 싱글맘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사명을 가지고 회복과 치유를 넘어 사명을 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며 연합하는 기쁨의 열매들이 맺히길 소망합니다.

생명 살리고
사람 변화시키고

의지할 곳 하나 없는 미혼모들의 고통스럽고 막막한 처지를 고스란히 목도한 그의 안타까움과 사명으로 다가왔습니다. 미혼모를 외면할 수 없었던 부부는 2015년 본격적인 섬김에 나섰습니다. 갈 곳이 없어 찢질방을 전전하던 젊은 미혼 임신부를 집으로 데려와 보호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좁은 거실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아기의 초음파 사진을 들여다보며 다 같이 감격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자 미혼모들 가운데서 소문이 알음알음 퍼졌습니다. 곳곳에서 “힘들다”며 도움을 요청해 오는 젊은 엄마들이 하나 둘 늘어난 것, 어느새 그 수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자 결국 교회 부목사직을 내려놓고 부부가 함께 본격적인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한편, 박대원 목사 부부는 입양한 두 자녀 케어도 빠듯한 사정에서 미혼모들에게 세간살이를 아낌없이 내주었습니다. 적게는 8명 많게는 18명까지 갈수록 늘어나는 미혼모들을 수용하고자 전셋집을 빼고 더 큰 평수의 월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후원자를 보내 만나와 메추라기를 채워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기도만 하면 결국 갈 곳 없는 미혼모들이 떠올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 만든다

러브더월드의 사명은 △사회복지 △교육 △상담 등 크게 세 가지 사업입니다. 미혼부모·한부모 가정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출산 및 의료 지원’ ‘주거 및 생활 지원’ ‘양육물품 지원’ ‘교육 및 취업 지원’ ‘심리·정서 지원’ 등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미혼모·미혼부 하면, 대개 10~20대를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30~40세대가 제일 많고 50~60대도 더러 있습니다. 이들은 혼전임신이나 사기결혼 등 정말 다양한 사연을 갖고 있는데, 조금만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면 비단 남의 이야기만이 아닌 나와 가까운 사람 또는 우리 이웃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미혼부모들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힘든 상황 속에 심지어 미혼부는 자녀의 출생신고조차 어려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미혼 가정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만난 사람들도 고아와 과부, 세리와 창녀처럼 소외된 이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자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이에 러브더월드 전 직원은 ‘생명 선교사’란 정체성을 갖고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러브더월드는 미혼부모 혹은 한 부모 가정을 방문해 함께 기도하며 직접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여느 사회복지기관과 다른 점이며 부모와 자녀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기어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부터 러브더월드의 격려에 힘입어

새 삶을 꾸려가는 부모와 무력무력 건강하게 자라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맺어가시는 열매를 보게 되고 다시 힘을 내어 사명의 자리로,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는 자리로 달려갑니다.

매일 아침마다 미혼부모들의 영혼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도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이 되길 바라는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고아와 같던 우리를 예수님은 먼저 사랑해 주셨듯이 미혼부모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걸 꼭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돌보시는 은혜의 자리에 기적과 회복의 통로 러브더월드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러브더월드

2025 한 홍 목사의 목회자 부부 리더십 컨퍼런스

· 2025 Conference Main Theme ·

“주의 영광을 회복하라: 예배와 중보기도”

2025년 한 홍 목사의 목회자 부부 리더십 컨퍼런스에 한국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을 초청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10월 27일(월)-29일(수)
가평 필그림 하우스

대상 40-50대 지역 교회 담임목사 부부(50커플)

등록 새로운교회 홈페이지(선착순)

회비 30만원(부부 숙식, 교재비 포함)

문의 02-597-0691, junlee@saeroun.net

Main Speaker.
한 홍 목사, 강정원 사모



Wednesday Prayer Worship



10월 수요일기도예배 영혼 구원

10/1 김대훈 목사

10/8 대체공휴일
국가공휴일인 관계로 예배가 없습니다.

10/15 김선교 목사

10/22 이승호 목사

10/29 백은실 권사
(글로벌 커피브레이크)

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문의 조은영 목사 choeunyoung@saeroun.net



예배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한국교총 1층 컨벤션홀
사무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뚝로6길 56 삼준빌딩 3층

TEL (02) 597-0691 **FAX** (02) 597-0601 **WEB** www.saeroun.net